

頹廢와 휴머니즘에 있어서의 파시즘文學

— 특히 獨逸文學을 中心으로 —

孫 永 林

.....目 次.....

- | | |
|-------------|--------------|
| I. 序 說 | IV. 反 파시즘 文學 |
| II. 파시즘의 本質 | V. 結 語 |
| III. 파시즘 文學 | |

I. 序 說

<獨逸의 悲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內容을 文學을 通하여 밝히고, 獨逸의 近代文學이 文學의 이즘에 相關없이 올바른 意味의 文學으로서 主體性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鬭爭을 하여 왔으며, 나아가 <獨逸의 悲哀>와 近代作家, 다시 말해서 獨逸의 近代精神이 어떻게 對決하여 어떠한 鬭爭을 하여 왔는지, 그것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그런데 獨逸의 近代精神, 換言해서 叡知的 人間으로서의 人間의 理性이 文學의 領域에 나타난 것은 18세기 後半에 속한다. 이것은 先進國인 英國이나 佛蘭西의 境遇에 比하면 2~4世紀는 뒤지고 있다. 16世紀의 大農民戰爭(1524~25)의 슬픈 終結에서 獨逸의 社會는 그 發展의 길을 그르치고 말았다. 그 以後의 絕對君主制에 의한 小侯國의 割據狀態는 國民의 分裂과 封建性을 벗어날 수 없는 現實로 이끌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獨逸의 悲哀, 다시 말해서 慘酷相의 根源이 되었다. 그리하여 歷史의 進步와 더불어 暗澹한 社會의 封建의 慘酷相은 資本主義가 支配的 經濟體制로 抬頭되었을 즈음에도 뿌리깊이 남아 있었다. 市民革命의 問題가 獨逸에서 처음으로 具體化된 것은 1848년의 일이었다. 그 해의 3月革命은 처음부터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1870년에 窮極의 人 매듭을 보았을 때에는, <獨逸의 悲哀>는 보다 더 露骨化 되었으며, 當時 獨逸帝國의 實質上의 Hegemonie를 쥔 프로이센의 새로운 Ideologie가 近代化의 途上에 있는 知識階級의 生活感情에 決定인 烙印을 찍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資本主義의 急速한 發展이 도리어 國粹的 Ideologie를 強化하게 되어, 第一次 世界大戰에 따르는 파시즘의 勝利로서 <獨逸의 悲哀>는 가장 典型的이고 殘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獨逸의 有名한 作家詩人들이 그 悲哀의 渦中에서 呻吟한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自己解放을 孤獨의 密室에서 꾸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精神의 世界에 安住하거나, 肉體를 벗어난 觀念의 世界에서 救援을 찾곤 했다. 그러나 一部 作家들은 自

己解放을 獨逸의 解放과 關連시켜 近代市民의 進歩의 文化를 創造하려 했다. 그리하여 그 過程에서, 或은 挫折하고, 或은 敗北하고, 或은 <獨逸의 悲哀>와 妥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더라도, 獨逸의 Humanism의 傳統은 이들 作家들에 의하여 守護되었던 것이다. 獨逸의 Fascism이 獨逸의인 悲哀의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獨逸의 Humanism은 그 悲哀와 徹底한 鬭爭을 함으로써 비로소 豐饒한 文學的 開花를 본다고 할 것이다.

II. 파시즘의 本質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 1862~1946)은 그의 긴 生涯를 통하여 남겨 놓은 수많은 文學作品에 의하여 獨逸文學上의 屈指의 巨匠이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그는 作家로서의 出發에 즈음하여 내어 놓은 社會問題劇<日出前>(Vor Sonnenaufgang: 1899)에 의하여 自然主義의 赫赫한 劇作家로서, Tolstoi (Leo~: 1828~1910) 및 Ibsen(1828~1906)의 影響을 받았으며, 技術的으로는 Arno Holz (1863~1929)와 Johannes Schlaf(1862~1941)의 徹底自然主義의 影響을 받아, <Das Friedenfest: 1890> 및 <Einsame Menschen: 1891>에 이어, Schlessien의 織工의 暴動을 描寫한 社會劇<織工>(Die Weber: 1892)을 써서 暗澹한 時代의 解放을 企圖한 先驅的 作家였다. (註¹⁾) 또한 그는 嚴肅한 作家生活을 繼續하여 所謂 <近代獨逸>을 代表하는 偉대한 作家가 되었으며, 國民의 支持를 한 몸에 받았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勤勞者에 대한 깊은 同情을 가지면서도 政治的인 일에는 直接的인 關心을 나타내지 아니 하였다. 그때문에 1926年 Preußen Akademie의 한 部分으로 새로이 獨逸學術院(Deutsche Akademie)이 設立되었을 때, 그는 이 Akademie의 必要性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公開狀을 내어 參加를 拒絶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心境의 變化에서인지 1928년에 이 Akademie에 加入하였던 것이다.

이 Deutsche Akademie는 Heinrich Mann (1871~1950), Bernhard Wassermann(1873~1934), George Kaiser (1878~1945), Hermann Hesse (1877~1962), Hermann Bahr(1863~1934), Arthur Schnitzler(1862~1931) 등의 自由主義的 思想을 갖는 作家들로 構成되어 誕生했기 때문에 直接的으로는 어떠한 僚官的 御用機關의 役割은 하지 않았다.

그후, 이 Akademie에 若干의 會員變動이 있었으나, Humanism을 背信하는 따위의 反動的 傾向은 나타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1933年 나치가 政權을 잡게 되자 이 Akademie에도 一大 變革이 일어났다. 그것은 <非獨逸의> 焚書事件과 유대系 學者의 追放, 學術批判의 禁止, 共產系 및 社會民主黨系 新聞의 停刊 等과 關連이 있는 것이었다. <階級鬭爭者, 共產主義者, 國際主義者, 人口混淆主義者, 國民文化抹殺論者, 軍備廢棄論者, 汎歐洲主義者, 汎性慾論者> 등이 함께

1)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Alfred Kröner Verlag) Stuttgart 1958, S. 428—9 (Naturalistische Drama)

어울러 公平을 誇示하던 이 Akademie가 <所謂 뽑혀진 偉대한 人物들>과 함께 <全體的 精神으로 물든> Deutsche Akademie로 變貌하였던 것이다.

Heinrich Mann을 비롯하여 Thomas Mann (1875~1955), Alfred Döblin (1878~1957), Franz Werfel (1890~1945), B. Kellermann, G. Kaiser, J. Wassermann 其他의 여러 作家詩人이 除去되고, 새로히 Hans Johst (1890~), Paul Ernst (1866~1933), Hans Grimm (1875~), Hans Friedrich Blunck (1888~), Erwin Guido Kolbenheyer (1878~), Friedrich Griese (1890~)等, Nazi作家에 속하는 온갖 人物들이 登場하였다. 그러나 Hauptmann은 傍觀者처럼 Deutsche Akademie의 <뽑혀진 偉대한 人物들>中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Nazi政府는 民族文化의 發生을 指導하지 文化를 抑壓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Akademie는 처음부터 그 機能이 政治에 隸屬되어, 文學振興을 위한 어떠한 建議라든지 詩人表彰을 위한 上申마저도 有名無實한 것이 되어, 오직 Nazi國家의 文化政策에 奴隸의인 奉仕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Hauptmann도 처음에는 Nazi政策을 贊成하지는 않았으나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덧 Fascism의 渦中에 말려들어 마침내는 스스로 <獨逸의 悲哀>를 讚美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1932년의 自身の 第70回 誕辰祝祭에서 그는 Goethe的인 姿勢를 取하여 남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滑稽을 演出했으며, 1942年 11月 15日의 第80回 誕辰日에는 Hitler로부터 보내어진 祝電과 記念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Hitler의 忠僕 Baldur von Schirach에 의하여 Wien에 招請되어, 거기서 所謂 <獨逸國民文化>에 功勞가 큰 이 老詩人은 Nazi獨逸로 부터 <Gerhart Hauptmann의 날>을 下賜받고 國民들의 祝福을 받았던 것이다. 그 當時 Nazi侵略軍들은 Stalingrad에서 惡戰苦鬪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獨逸國民들은 Demagogie의 魔酒에 醉해 있었다.

Hauptmann과 같은 卓越한 詩人作家들을 하나의 奴隸的 Philister(俗物)로 만든 支配權力은, 비록 그들(作家)의 內面的 精神은 支配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나름의 그 權力의 Ideologie가 그만큼 強靱한 內容과 本質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明確하고 確固한 理論이 있었던 것인지는 疑心을 禁할 수가 없다.

獨逸 Fascism의 哲學的 理論의 基礎라 일컬어지는 Alfred Rosenberg의 <20世紀의 神話>(Der Mythos des 20. Jahrhunderts)는 German 民族의 優秀性을 前提로 하는 神意的 論理를 展開하여, 그것이 처음 宗教, 藝術, 哲學의 理論의 方面에서 부터 政治, 外交, 經濟, 社會, 婦人問題 等の 여러가지 傍證들을 끌어들이어 讀者를 眩惑하고 있다. 第一部 <價値의 鬪爭>, 第二部 <German 藝術의 本質>, 第三部 <오고야말 國家>도 결국에 있어서는 Arian 種族萬能의 <Blut und Boden>의 信仰告白이며, 極端的인 猶太人 排擊의 感情을 實吐한 것에 不過했다. 이 Rosenberg는 Nazi機關紙 <Völkischer Beobachter>의 編輯責任者에다 Nazi外交擔當者가 되어, Nazi理論의 熱烈한 宣傳者로 活躍하였으며, 第二次 大戰當時에는 소련占領地域의 行政

長官이란 重職에 올라 掠奪과 殺戮, 強制勞動等, 自己理論의 殘忍하고 慘虐한 本質을 如實히 露呈하였던 것이다.

「Slave 民族은 獨逸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獨逸사람이 Slave 民族을 必要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Slave 民族에겐 教育은 必要치 않다. 그들이 百까지 해야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充分하다」等²⁾ (나치의 除謀와 侵略, Bd. 8, S. 58) 이것은 戰後 Nürnberg의 國際軍事裁判庭에 提出된 Rosenberg의 備忘錄의 一部를 William L. Shirer가 그의 <第三帝國의 興亡>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에 引用하고 있다.

요컨대 Fascism의 本質은 科學的 理論이 없으며, 만약 科學的으로 組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Demagogie에 의한 假面에 不過한 것이었다. Fascism은 恐慌과 Proletariat革命의 威脅에 대한 獨占資本主義가 軍部와 提携하여 擇한 反革命的인 抑壓體制로 發達하였으며, 中世의 神秘主義 및 權威主義, 軍國主義 등의 獨特한 組織力과 Demagogie에 의한 露骨의인 支配體制로 完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Fascism의 Ideologie를 過少評價할 수는 없다. 理論的 根據가 없으면 알을수록 그에 反比例하여 巧妙한 詐術이 作用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은 歷史上의 한 時期에 지나지 않으나, 強大하게 成長하였으며, 可恐할만한 謀略性과 計劃性을 가지고 大衆에게 不斷히 作用하여왔던 것이다. 더욱이 教育의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Fascism의 組織化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精神財를 惡用하였다. 다시 말해서 Nazi獨逸은 Goethe, Schiller, Hölderlin, Rilke 까지도 惡用하였다. 第二次 大戰中の 어떤 將校가 自己 日記의 페이지마다 自己가 行한 온갖 殘虐行爲와 同時에 自身이 읽은 Rilke詩의 印象을 쓰고 있으며, 그것이 깊은 感受性과 理解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將校 역시 獨逸 Fascist의 하나의 典型에 속한다 할 것이다.³⁾

支配階級에 의한 意識的이고 惡意的인 欺瞞이 被支配者에게 作用하여, 幻想을 가지고 虛僞를 眞實이라 우기는 點에 있어서는 Fascism에 미칠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Fascism의 Ideologie는 있는 모든 手段을 奸計로 盛裝하여 崇高하게 되고 道德的이 된다. 그리하여 大衆들 속의 많은 知識階級이 Fascist의 지나친 行動에 反撥을 느끼면서도, 어느덧 Fascist의 思辯的 魔術의 凶計에 묶이고 만다. 만약 그들에게 주어진 環境속에서 批判的인 態度를 갖고 어쩔 수 없이 宿命에 건디어 나가려는 着實한 사람도, 단지 主觀的 良心만으로는 Fascism의 詐術과 脅迫앞에 無氣力하게 꺾이고 만다. 英國의 R. P. Dutt는 그의 <Fascism and social Revolution: 1934>에서 Fascism은 「社會主義, 資本主義, 協同主義, 針小棒大한 道德的 誓의과 잠꼬대, 排他煽動, 統一提唱, 戰爭讚美, 拷問의 傍觀, 原始禮讚, 大企業의 非難, 產業指導者의 偶像化, 19世紀의 遺物과 自由主義的 民主主義的 人道主義的 迷信의 排擊, 重商主義, 絕對主義, 異端主義, Caste

2) Vgl. W.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6. V, XXVII.

3)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Kyodo 1955, P. 268

制等, 自身이 속하는 種族을 除外한 다른 모든 人類의 劣等을 說明하는 人種理論, 反유대主義, 北方人의 優越說 등이 뒤범벅이 된 「진구령속」이라 定義하고 있다.

如何間 Fascist들이 Ideologie로서 어떠한 假面을 둘러 써더라도, Fascism의 本質은 Humanism을 蹂躪하는 軍國主義者들의 숨길 수 없는 獨裁며 모든 民主主義의 自由의 抑壓이었던 것이다.

II. 파시즘 文學

Hitler의 Fascism은 獨逸文化上에 破壞的이고 發狂的인 暴風을 휘몰아 왔다. 그리하여 獨逸의 精神的 發展은 Hitler에 의하여 逆行되고 말았다.

1934年 5月 10日 밤, Hitler가 首相이 된지 約 4個月 半 後, 수만 명의 學生들에 의한 蠟燭行列이 Unter den Linden 廣場에 모여 들었다. 蠟燭은 廣場에 쌓여진 산더미 같은 書籍에 點火되어 불길에 휩싸였다. 當時 Nazi의 啓蒙宣傳相이며 文化會議所 總裁였던 P. J. Goebbels(1897~)의 承認아래, 意氣揚揚한 學生들에 의하여 불길속에 던져진 大部分의 책들은 H. Mann, Th. Mann, L. Feuchtwanger, J. Wassermann, Arthur Schnitzler, Arnold Zweig, Stefan Zweig, E. M. Remarque, Walther Rathenau, Albert Einstein, Alfred Kerr, Hugo Preuss 등의 國內作家와 Jack London, Upton Beal Sinclair, Hellena Adams Keller, Margaret Sanger, Herbert George Wells; Henry Havalock Ellis, Emil Zola, André Gide, Sigmund Freud, Marcel Proust 등의 外國作家의 것들이었다. 이 光景을 보고 Goebbels는 <獨逸國民의 魂은 다시금 스스로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불길은 낡은 時代의 最終의 結末을 비취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同時에 새로운 時代에의 밝은 불빛을 밝혀주는 것이다>라고 부르짖었다. (4)

Hitler는 그의 演說에서 <우리는 權力國家 獨逸만이 아니라, 美國獨逸을 建設할 것이다. 새 獨逸은 또한 神聖한 獨逸藝術속에 그 實現을 볼것이다. 世界가 우리를 野蠻이라 非難하더라도 우리는 世界를 우리의 藝術로 놀라게 할것이다>라고 豪言했으며, Goebbels는 <將次 우리의 時代에 대한 窮極的 精神的 藝術的 面貌를 새겨낼 젊은이들이 이미 우리들 속에 틀림없이 生存하고 있다. 未來의 詩人, 音樂家, 彫刻家, 建築家가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無名의 젊은이들 속에, Hitler Jugend의 어딘가에 힘차게 行進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宣傳했다. (5) 이와같은 Nazi 指導者들의 말 가운데에는 그들 國家가 現實的으로 참신한 新進藝術家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告白한 것이며, 同時에 그들이 權力과 政策에 直結되는 뛰어난 藝術作品의 登場을 몹시 渴望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文化指導에 대한 熱誠은 狂的이었다.

4) Vgl. W.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b. II, VII

5)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P. 271

그들은 Weimar共和國의 꿈에서 부터 國民全體를 일깨워, <새로운 文化를 創造한다>는 妄信을 恣行하려고 破壞와 脅迫等 갖은 手段을 動員하였다. 個人主義, 自由主義, 平和主義가 否定되고 유대인 排斥, 自由拘束, 그리하여 獨逸國民의 모든 生活部門에 걸친 極端的인 統制가 實行되었다. 그중에서도 言論의 統制는 極甚하였다. 新聞이나 雜誌는 옛날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每日아침 Berlin 日刊新聞의 編輯者며, 國內 各新聞의 通信員들이 宣傳省에 모여 Goebbels 및 그곳 幹部들의 指示를 받았다. 게다가 Neue Rundschau, Berliner Tageblatt, Frankfurter Zeitung 등을 除外한, 그나마 간신히 命脈을 維持하던 大部分의 新聞이 廢刊되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라디오, 映畫, 演劇 等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監督하고 決定하던 Goebbels나 Josht도 獨逸의 劇場이 Goethe나 Schiller, Shakespear의 作品의 感動的이고 讚嘆할 만한 演出을 妨害하지는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異常한 것은 Hauptmann의 境遇였다. 그에 關해서는 앞에서 多少 言及되었으나, 그는 熱烈한 社會主義者였기 때문에 Kaiser Wilhelm 二世時代에는 皇室劇場에서 그의 作品의 上演이 禁止되었으나, 共和制 時代에 와서는 獨逸에서 가장 人氣있는 劇作家로서 그 地位를 第三帝國時代까지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의 作品은 연달아 上演되고 있었다. W. L. Shirer는 「나는 그의 마지막 作品인 <Kathedra의 아가씨>가 上演되던 첫날밤 幕이 내리자, 白髮이 검은 케이프위로 물결치는, 나이 많고 尊敬할만한 人物이 Goebbels와 Johst의 부축을 받으며 劇場에서 悠悠히 나가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當時의 Hauptmann의 모습을 描寫하고 있다. (6)

如何間 Nazi文化建設은 表面上으로 近似했다. 特히 國民들의 눈에 잘 띄이는 것, 다시 말해서 劇場의 建設같은 것이 그 實例라 하겠다. 過去의 모든 獨逸帝國 政府는 演劇을 위하여 豫算을 支出하지 않았으며, 단지 諸連邦에서 經濟的 뒷받침만을 해 왔다. 그러나 Nazi政府는 1934年과 35年사이에 무려 850萬 Mark를 支出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翌年度分으로 1,200萬 Mark를 計上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各連邦에서 支出하는 費用이 加算되기 때문에 演劇을 위한 豫算의 실제는 실로 尙大한 것이었다. Nazi가 政權을 잡았을 때에는 Berlin에 불과 2~3개의 國立劇場이 風前燈火의 모습으로서 있던 것이, 그 후 Berlin의 곳곳에 새로히 劇場이 세워지고, 獨逸全域에 걸쳐 181개의 常設劇場과 26個의 巡廻舞台, 81個의 巡廻興行團이 活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劇場에서 上演되는 모든 演劇들은 政府의 嚴格한 統制를 받는 文字 그대로의 꼭둑각씨 놀음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Fascism의 破壞的 暴力에 대한 反對소리가 國外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Roman Rolland은 Nazi의 暴力에의 煽動, 反유대의 國粹主義, 思想의 處刑, 沒知覺한 焚書事件, 政治的 學界및 教育界에의 浸透 等에 強力히 抗議했다. 이에 대하여 獨逸의 老大家 L.G. Binding은 Nazi를 擁護하여 應酬하기를, 自身은 NSDAP(나치스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自身의 解答이 容觀的 證人의 證言으로서 信賴될 것이라 前提하면서 R. Rolland

6) Vgl. W.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b. II, VII

에게, 니아가 全世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辯明하였다. 「R. Rolland이여, 너는 모든 國民中에서도 가장 國民的인 사람中의 하나다. 그러나 너는 國民的일 수 있는 그 무엇을 알고 있는가? 14年間 우리들은 民族으로서 共感될 수가 없었다. 共感되도록 許容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저 베르사이유 強制條約이다. 우리 國家가 存立하는 基礎는 Weimar憲法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實로 저 베르사이유 條約에 있다. R. Rolland이여, 너나 그의 사람들이 이 條約의 橫暴와 鬪爭하였지만 아무런 所用이 되지 못했다. 이 條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條約들이 아직도 存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한 人物이 나타나 이것을 破棄하고 精神的 拷問을 打倒한다. 그리하여 分散되고 破壞된 國民을 結合하여 하나의 全體民族으로 만들려고 한다. 베르사이유 條約의 精神的 勢力이 崩壞 되었다. R. Rolland이여, 이것은 너와 世界가 이루지 못한 일이다. 이 全體民族이야말로 너가 理解하지 못하는 核心이며 重心인 것이다. 事態의 眞相은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Binding도 Nazi의 破壞的 暴舉에 대해서는 敢히 이를 否認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佛蘭西 革命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다고 是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強制移住 및 追放이 없었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可恐할만한 外的現象이지, 個人및 多數者에게 致命傷을 준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은 極히 部分的인 現象으로서 그것이 아주 銳利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本來의 主權, 核心, 事態의 眞相과는 何等の 關係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附隨的 事由를 醜評하기 전에 事態의 眞相을 追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너나 世界가 이 革命을 非難하는 것을 無視해 버릴려는 것은 아니며, 이것을 올바른 立場에서 觀察하고저 하는 것이다. 그리고 Rolland이 「國粹的 파쇼의 獨逸이야말로 참다운 獨逸의 最惡의 敵이다」고 한 말에 대한 批判으로 「너는 Hitler와 獨逸國民에게 眞實로 獨逸的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가 Gerhart Hauptmann과의 論爭에서 <他民族의 幸 不幸을 自民族의 그것으로 共感하는> 偉大한 世界人의 한 사람이라고 한 Goethe 역시 Goering이나 Goebbels 및 突擊隊員 Müller와 마찬가지로 獨逸의이었으며,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나 亦是 놀랄만큼 獨逸的인 것이다. 너가 <世界人>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 모두가 獨逸精神을 갖는 사람들이었다. Goethe, Nietzsche, Beethoven도 그러하다. 여기에 너의 誤謬가 있다. 너는 理想과 現實을 잘못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獨逸人이 갖는 素質이나 能力이라고 하는 것은 國際性이 아니라 全體性이다. 모든 獨逸的인 것은 그 全體性, 다시 말해서 包容性에 의하여 他民族에게 作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熱狂的인 Fascist는 아니었으며, 도리어 純粹한 一個人으로서 <Nazi革命>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歡迎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作家가 獨逸에서 결코 例外일 수는 없었다. 그는 1938年 Nazi最盛期에 죽었으나, Nazi로 부터 <肉體를 神化하고 神을 肉體化하여 神과 同等하게 되었다>고 激讚을 받았다.⁷⁾

실로 NSDAP(나치스黨)의 組織은 모든 社會機構의 内部에 깊이 浸透해 있었다. 國民全體가 日常生活을 통하여 徹底하게 Nazi教育을 받았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었다. 男子는 Jungevolk,

7)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272~3

Hitler Jugend, Arbeitsdienst, 國防軍, SS(Nazi親衛隊), SA(突擊隊), NSKK外的 外廓團體, 特히 Kulturkammer(文化局)의 指導下的 諸組織 等, 女子는 BDM(獨逸女子青年團), NS Frauenschaft 等, 게다가 勤勞階級에 대한 厚生施設 KDF等으로 國民을 巧妙하게 Nazi의 魔法의 魔術에 얽매어 놓았던 것이다. 더욱이 背後에는 끊임없는 Konzentrationslager(強制收容所)의 恐怖의 魔手が 도사리고 있었다.

1934年 第一回 Nazi 國民文化賞을 받은 Richard Euringer의 作品<獨逸의 受難> (Deutsche Passion: 1933)은 大戰과 現代 獨逸文化와의 內的 連關性을 象徵하는 放送劇으로 絶讚을 받았다. Euringer는 이미 1919年頃부터 文學活動을 始作한, 다시 말해서 Nazi가 낳은 作家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作品을 契機로 新興獨逸의 文學戰線의 代表的 鬪士가 되었다.

이 作品은 一種의 現代獨逸의 神話劇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 Mephisto와 같은 惡魔와 墮落속에서 꿈틀거리는 戰死者와의 사이에 應唱이 始作된다. 갑자기 넘어져 있던 한 兵士가 살아 나서 鐵條網의 冠을 쓰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똑바로 서 있다. 獨逸은 살지 않으면 안된다. 너희 戰死者들이여, 서라!/> 이와같이 해서 復活한 無名의 兵士는 獨逸의 受難을 참고 견디어 戰後의 混亂한 祖國獨逸에 歸還한다. 거기에는 굶주린 사람, 貞操를 判 女人, 憎惡에 찬 人, 悲嘆에 지친 人, 虛脫한 人이 넘쳐 흐르는, 마치 미치광이 精神病院과 같은 廢墟다. 그 無名의 兵士는 戰線에서 얻은 自身의 信念을 모든 階級의 人들에게 演說하지만 惡魔는 不斷히 國民을 誘惑한다. <이쪽은 사랑, 저쪽은 憎惡, 善魔와 惡魔中 어느 쪽이 너희를 救援할지, 자, 택하여라> 結局 善魔 即 兵士가 勝利하여 昇天한다. 그리여하 戰死者의 피로 이루어진 第三帝國에 대한 讚歌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惡魔는 奈落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이 作品에는 Humanism을 肯定하고 戰爭을 否定하는 精神이 없다. 도리어 戰爭이 새로운 精神을 낳는다는 戰爭讚美가 있을 뿐이다. 第一次 大戰의 獨逸의 苦惱가 어디에서 由來하고 있는지 解明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作品의 重大要因이라 할 수 있는 戰線의 體驗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人間의 自覺이 그대로의 觀念의 Nazism인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Realism과는 아무런 關係없는 Nazi國家의 誕生을 謳歌하는 既成概念에서 出發한 作品인데 틀림없다. 大戰에의 죽음의 犧牲이 復活에의 勝利에 의하여 戰後 獨逸의 苦難을 克服하여 第三帝國의 實現을 祝福한다고 하는 主題, 그것이 Hitler의 <Mein Kampf>에서 이르는바 獨逸帝國主義軍隊의 <不死>의 精神을 자랑하는 英雄精神과 一致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第二次 大戰時에는 空軍部隊의 指導者로 參戰하여 Hitler에게 忠誠을 다 한 人物이었다.

Hitler의 所謂 <美國>獨逸의 總裁 Hans Johst와 그 <美國>의 青年指導者 Baldur von Schirach는 Nazi가 아무리 그들을 자랑하고 두둔하더라도 그 才能에 있어서 二流 以下며, 단지 獨逸 Fascism에의 狂信에 있어서는 一流라 할만한 人物들이었다. Johst는 H. Mann, Th. Mann, Werfel, Brecht, Wassermann, Zweig, Renn, Becher 等を 追放하고 Deutsche Akademie의 院長이 되었으며, 1935년에는 獨逸著作者會議 議長이 되고 Nazi의 Akademie賞을 받았다.

그는 Frank Wedekind(1864~1918)의 影響을 받아 처음에는 表現主義 作家로 指日되었으나, 處女作부터 國家를 위한 죽음의 뜻을 肯定함으로써 Humanism의 올바른 精神을 拒否하였다. Nazi 文學史家들로 부터 最大 傑作이라 일컬어 지는 그의 <Schlageter>는 1933年の München 에서 일어난 Nazi의 暴動을 戯曲化한 代表作이다. 主人公 Schlageter를 中心으로 온갖 階級의 靑年들이, 農民의 아들, 教授의 아들, 共產主義, 社會主義를 信奉하는 長官의 아들이, 運命的으로 祖國 獨逸이라는 한 깃발 아래 모여 戰火中에 親히 體驗한 진한 國民的 的의 意識으로 Nazi 理念을 갖고, 第三帝國 建設의 前奏曲을 演奏한다는 作品이다.⁸⁾ 필경 巧妙한 會活도 緊迫한 事件도 모두가 Nazi思想의 宣傳材料에 不遇했다. 嚴密히 말한다면 人物의 個性이 뚜렷하게 明示되지 못하고 概念의 類型만이 叙述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는 이미 獨逸을 亡命한 H.Mann, Th.Mann, A.Döblin, L.Feuchtwanger 等の 作家를 非難하여, 그들의 作品이 獨逸의 血統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獨逸말을 誘惑의 道具로 썼을 뿐이며 讀者에게 獨逸의인 얼을 심어 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無限한 바다의 巨大한 廣場에서 創造하고 建設할 새로운 國家를 이 世上의 現實에 끌어 들이려 하지 않고, 人間을 蔑視하고 그 結合을 妨害하며 걸잡을 수 없는 精神分析에 沒頭하고 있다고 헐뜯었다. 그러나 그가 非難하는 H.Mann 等 여러 作家들이야말로 自己보다 더 獨逸의이고 藝術的인 偉大한 業績들을 남겨 놓았다는 事實은 그 後의 歷史가 잘 立證해 주고 있다. 祖國과 人間의 破壞에 狂奔한 Fascist 作家의 傲慢不遜하고 獨善의인 잠포대임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Nazi로 부터 指導的 靑年詩人이라 불리던 Baldur von Schirach는 惡意에 있어서 文學의 政治에의 隸屬을 立證한 사람이었다. 그는 <Hitler Jugend의 旗의 노래>를 만든 사람으로서 Nazi獨逸에 널리 알려진 詩人이었으며, Hitler Jugend의 最高 指導者가 되었고, 또 얼마 안가서 Wien管區長官이란 重職에 올라 政治의 實踐에 文學을 完全히 犧牲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敗戰後 逮捕되어 1946年の Nürnberg 國際軍事裁判所에서 戰犯으로 Goering外 24名과 같이 審判臺에 올랐다. 1946年 5月23日 Nürnberg 法廷의 證人臺에 올랐을 때, 그는 「나는 獨逸靑年을 Weimar에로 돌이킬려고 試圖했다. Weimar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獨逸의 故鄉이기 때문이다」고 豪言했다. Weimar는 確實히 Goethe의 都市이며 同時에 Schirach의 故鄉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偉大한 詩人 Goethe와 白面의 Hitler와의 사이에 內面的으로 무슨 緣故가 있었으랴. 그는 Hitler의 말을 빌어 法廷에서 까지도 Nazism을 讚揚하고, 나아가 Hitler Jugend의 運動이 共產主義의 威脅에 대한 抵抗이며, Hitler는 獨逸靑年에게 未來의 길을 가르쳐 준 人物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Wien의 恐怖時代를 現出시켰으며, Wien에 居住하던 6萬名의 猶太人을 強制로 移住시키고, 猶太人이 유럽文化의 敵이라 몰아 세워 奴隸以下の 強制勞動을 強要했음에도 不拘하고, 그가 Wien에 派遣된 것은 <文化的> 目的이었으며, Wien에 있어서의 GE-STAPO의 活動도 모르며 強制收容所의 일도 모른다고 主張했으나, 그 翌日인 5月 24日에는

8) F.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554

무슨 急激한 心境의 變化에서인지 Hitler를 攻擊하여 Hitler가 무고한 數百萬의 民衆을 虐殺한 殺人者며, 自身の 罪는 이러한 人間을 唯一한 指導者로 信奉했기 때문이라 얼버무렸다. 換言하면 獨逸의 모든 犯罪는 Hitler의 責任이며 自己의 責任은 이런 犯罪人앞에 獨逸青年들을 무릎 꿇게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쯤되면 그의 文學의 本質은 虛僞와 不正과 罪惡을 意味하는 以外の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⁹⁾

Hitler는 自身이 말하는 <美國>獨逸을 建設하기 위하여 相當數의 젊은 國家主義 作家들을 養成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歡迎받고 讚揚받은 <Nazi 新銳詩人의 第一人者>는 Gerhard Schumann이었다. 確實히 그는 有象無象의 여러 Nazi作家中에서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Stefan Georg(1868~1933)의 傳統을 이어받는 才能있는 存在로 認定을 받았다. 그는 1911년에 태어난 血氣方壯한 Nazi突擊隊員으로서 第三帝國 建設에 몸을 바치려는 眞摯한 詩人이었다. 따라서 그의 作品의 大部分은 <나>의 詩가 아닌 民族協同體(Volksgemeinschaft) 乃至 <우리>의 詩였다. 그 <우리>는 絶對的으로 <國家> 및 <指導者>에 服從하고 奉仕하는 것이며, 어떠한 批判도 없이 오로지 Hitler의 命에만 服從하는 그것이었다. 그는 Hitler를 <千年에 한 사람 밖에 없는 대장부>라 일컬었으며, 殘忍한 侵略戰爭이 第三帝國主義 國家發展의 契機라 믿고 敢然히 戰場에 나아가 스스로 侵略者가 되었던 것이다.

要컨데 作家도 國民運動戰線의 兵士로 召集되던 Nazi獨逸에서의 文學은 아름다운 開花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獨逸 Fascist가 <우리의 文學>이라 誇示하던 Nazi文學의 <最高傑作>은, 事實상 1933年 Hitler가 政權을 잡고 史上未曾有的 權力國家를 成立시킨 그 以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었다. 말하자면 Hans Grimm의 <土地없는 國民> (Volk ohne Raum: 1926)과 Erwin Guido Kolbenheyer의 <Paracelsus 三部曲> (1917~25), Erwin Erich Dwinger의 三部作 <Deutsche Passion> (Die Armee hinter Stacheldraht: 1929, Zwischen Weiß und Rot: 1930, Wir rufen Deutschland: 1932)과 Paul Ernst의 <Kaiserbuch> (1922~28) 등이 그 實例이다. 窮蹙하기 짝이없는 Fascism文學中에서는 이러한 作品들이 拔擢되었는지 모르나, <Volk> (民族)이라든가 <Blut und Boden> (피와 土地) 따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Nazi의 文學評價로 치지 않는다면, 이런 따위를 到底히 傑作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들은 分明히 말해서 모두가 凶惡罔測한 Fascism에 속하는 文學들인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H. Grimm의 <Volk ohne Raum>은 Rosenberg에 의하여 Hitler主義의 古典的 作品이라 일컬어 졌다. 「獨逸民族의 子孫에겐 他民族을 侵犯하는 일 없이는 自由로히 伸張할 수 있는 한 치의 땅도 남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獨逸民族의 子孫은 漸漸 增加하여 土地가 비좁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反目하고 猜忌하게 되었다. 그들 國家에 빠져 있는 것은 오직 土地와 空氣뿐이라고 하는 것은 理解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⁰⁾ 이것이 作者에게 이 小說을 쓰게한 要因이

9) Vgl. W.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3rd Reich, b. I, V. u.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278

10) Vgl. Hans Grimm: Volk ohne Raum, Berlin 1926, Bd. I

었다. 結局 獨逸은 國土를 擴張해야 하고 植民地가 必要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全篇의 主題는「우 리앞에는 좁은 土地에 대한 苦悶의 鐵鎖가 있다. 이 좁은 土地에서는 肉體도 精神도 바로 떨어 날 餘地는 없다. 그러나 親舊여, 나는 알고 있다. 나의 子息들도 나의 一族도 나아가 獨逸民族도 모두가 같은 하나로 <단 하나>의 運命을 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¹¹⁾이라고 序章에 明白히 表現되고 있다. 作者는 獨逸의 <悲哀>를 象徵하는 人物 Kornelios라는 農村青年을 設定한다. 이 青年은 祖國을 떠나 멀리 아프리카 沿岸警備의 水兵에 志願하여 그곳에서 英國의 橫暴를 알고 一時 歸國하나, 다시 南아프리카로 건너간다. 그곳에서도 英國의 支配에 시달리며 轉轉하다가 어떤 未亡人이 經營하는 農場에 일을 얻긴 했으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南阿戰爭이 일어나자 反英軍에 投身하여 곧 逮捕되고 만다. 그後 St. Helena섬에 流配되고 거기서 父母의 죽음과 未亡人(戀人)의 죽음을 듣는다. 英國의 勢力이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南아프리카에 다시 密入國한다. 그곳에서도 가는 곳마다 獨逸人은 虐待를 받는다. Kornelios는 斷呼히 決意하여 獨逸의 領土를 開拓할 것을 생각하고 獨逸領 西南아프리카 開發에 나선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에서 偶然히 만난 친척과 같이 西南아프리카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獨逸軍에 들어가 討伐作戰에 加擔하여 植民地 開發에 힘을 다한다. 그러나 世界大戰의 結果 獨逸軍은 植民地를 잃고 獨逸民族은 <土地없는 國民>이 된다. Kornelios는 歸國하여 困窮에 빠진 祖國에서 새로운 植民地 要求의 宣傳者가 되었고, 마침내는 政黨테로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만다. 이와같이 帝國主義의 強奪戰爭을 否定하고, 나아가 이것을 意識의이고 煽動的으로 재촉하는 文學이 <Volk ohne Raum>의 企圖하는 바 참 모습이었다. ¹²⁾ <偉대한 獨逸協同體 (Deutsche Gemeinschaft)의 運命小説>이라는 이 作品은 그 手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으며, 登場人物의 內面追求도 별로 없을 뿐더러 特別히 이 作品의 背景을 이룰 만한 獨逸의 時代나 社會에 대한 分析도 알다. 그는 Nazi에 앞장서는 흙에서 태어난 似而非 愛國作家의 先驅였던 것이다.

그밖에도 全體者, 即 協同體만이 모든 個體에 先行한다는 것을 哲學的으로 追求하여 自然主義 및 個人主義를 藝術로 沮止하려 한 Kolbenheyer (1878-)¹³⁾와 大戰中 시베리아에서의 捕虜生活, 脫走等の 體驗에 바탕을 둔 反Bolsheviki의 祖國愛를 強調한 Dwinger (1898-)¹⁴⁾며, Marxism에 挑戰하여 13世紀의 獨逸皇帝의 <皇國> (Kaiserbuch)을 새로히 再現시키려는 國家精神을 鼓吹한 Ernst¹⁵⁾, 그밖에 F. Griesse (1890-), H. Stehr (1864-1940), H. F. Blunck (1888-) 등, 모든 <偉대한 Nazi作家>라 불리던 사람들의 代表作品은 1933年 以前의 것들이었다. 그후 그들이 獨逸 Fascism에 協力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藝術의 守護神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作家들은 <獨逸의 悲哀>를 타고난 슬퍼해야 할, 아니 어쩌면 웃

11) Hans Grimm: Volk ohne Raum, Bd. I, Vorrede.

12)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89(Im Erbe des 19. Jahrhunderts) u. Hans Grimm: Volk ohne Raum

13)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56~8(Mystischer Kollektivismus)

14)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65~6 (Mystik des Krieges)

15)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479~80(Neuklassizismus)

지 않을 수 없는 '犧牲者'였던 것이다. 結局 그들에게 共通되는 點은, 獨逸國民의 眞實의 소리를 作品에 反映하지 않고 社會動向의 眞實을 쓰지 않고 Humanism을 背信한 點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Nazi獨逸은 空前의 非文學的 反文學的 時代였다. 獨逸의 올바른 文學의 傳統은 끊어지고 말았다. 이때의 獨逸文學은 大體 어디에 存在하였던가? 그것은 國外 各地에 亡命했던 作家들에 의하여 守護되었던 것이다. 國內에서도 抵抗文學으로서 非合法的 形態나마 간신히 命脈을 이은 참다운 文學의 씨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송두리째 짓밟히어 아름답게 꽃피우지 못했던 것이다.

Ⅳ. 反파시즘 文學

Nazi獨逸은 國內에 남아있기를 願하든 않든 간에 才能있는 作家詩人들을 國外로 追放하였다. Th. Mann과 Albert Einstein을 비롯하여 有數한 유대인 作家및 大部分의 有名한 精神的 作家들이 祖國을 등지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은 獨逸文化의 破壞에 있어서 比較的 가벼운 部分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들은 國外에서 發展을 거듭하였다. 그 反面에 國內에 殘留해 있던 作家들은 本意아니케도 억지 병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의 大部分은 처음부터 強制收容所에서 혹은 GESTAPO의 地下室에서 生命을 잃었다. 게다가 Hitler의 愚民化 政策에 反하여 地下에서 勇敢히 싸웠던 사람들은 大部分 斷頭臺나 絞首臺의 이슬로 사라졌다. 反面에 自由를 누리던 作家들도 文學的 發言의 自由를 잃고 말았다. Hitler의 Gleichschaltung (Nazi化)은 過去 어떠한 反民主的 專制主義보다도 極甚한 言論의 彈壓이었다. 그러나 이 Gleichschaltung은 Hitler나 Goebbels가 期待하던 바와 같은 成果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恐悚와 買收로 文學을 沈黙시키고 그 內面을 腐敗시킬 수는 있었으나 獨裁的 命令으로는 아무래도 效果的인 宣傳文學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¹⁶⁾

그러나 Nazi에 의하여 追放되었던 亡命作家들은 Humanism을 守護하기 위한 文學의 生命을 온갖 苦難속에서도 成長시켜 나갔다. Nazi制服을 입은 作家가 國內의 現實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獨逸의 現實은 亡命作家에 의하여 國外에서 그 樣相이 훌륭하게 表現되었다. 여기에는 獨逸國民의 墮落을 갖게하는 危機에서 出發하여 그 墮落의 本性和 歷史, 그 原因, 歷史的으로 形成된 獨逸國民性의 根源을 文學的으로 暴露함으로써 轉向할 수 있는 可能性이 나타나고 있다. Hitler의 權力奪取에 대한 反Fascist文學은 Fascism의 殘虐行爲를 全 文明世界에 暴露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Fascist의 支配를 獨逸의 一般的 現象으로 暴露하려는 大部分의 著作들이 事實의 眞相과는 동떨어진 面이 적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作家들은 數年來 國外에 亡命해 있었기 때문에 國內의 事情에 대한 知識이 貧弱했으며, 그나마 그것도 間接的 口傳에 의한 知識에 不過했던 것이다.

16) Doge u. Obase: Die Kurz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Tokyo. 1951, S. 214

그 중에서도 Bertolt Brecht의 <第三帝國의 恐怖와 貧困> (Furcht und Elend des dritten Reichs: 1938)은 Fascism에 의한 日常生活의 道德的 頽廢를 暴露한 典型的 代表作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Trommeln in der Nacht> (1922), <Mann ist Mann> (1927), <Die Dreigroschen> (1928) 등의 그의 作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表現主義 및 新即物主義 스타일로써 現實을 假借없이 批判하고 諷刺한 Nihilist였다.¹⁷⁾ 그의 <Furcht und Elend des dritten Reichs>는 各各 獨立된 24場面으로 構成된 戯曲으로, 그 場面 하나 하나가 한결같이 Nazi治下의 獨逸國民의 生活를 斷片的으로 描寫하고 있으며, 그것이 結集하여 Fascism의 非人道的 實體를 暴露하고 있다. 이것은 Th. Mann이 <Nazi革命의 內容, 새로운 說教와 行動, 理論과 實踐은 野獸的 行爲 바로 그것이다>고 한 말을 端的으로 具象化한 作品이라 하겠다. Nazi突擊隊員, 親衛隊員, 士官, Hitler少年團員, 物理學者, 外科醫, 勤勞奉仕隊의 大學生, 勞動者, 百姓, 牧師, 유대人의 아내 등이 場面마다 獨自의인 性格을 띠고 登場한다. 게다가 Nazi의 彈壓과 強制에 歪曲된 小市民의 生活 등이 생생하게 描寫되어 있다. 그 中 第10景에서는 自由主義的 大學教授와 그 夫人사이에 오가는 對話中에 現實을 批評하고 不平하는 이야기를 그 子息이 듣고 或時나 父母를 告發하지 않을까 不安해 하는 場面이 나오고 있다. Nazi는 善良한 사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스파이로 利用하는 그러한 社會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보기이다. 國民 相互間의 野卑한 背信, 國民에게 奉仕한다는 美名 아래 恣行되는 強制收容所의 테러리즘, 유대人 아내의 強制離婚, 勤勞奉仕의 차참한 榨取 등이 描寫되고 있다. 그는 反 Fascism 精神에 立脚하여 事實을 目擊한 사람들의 報告나 여러가지 新聞들의 記事를 통하여 <獨逸의 悲哀>를 그런대로 再現시켰던 것이다. 1933年 2月 27日의 저 有名한 國會放火事件은, Nazi가 3月 5日의 總選에 勝利하여 支配를 確立하기 위하여 스스로 불을 지르고는 反對派의 所行이라 國民을 欺瞞하였으나, 이 事件의 真相은 亡命作家들에 의하여 비로소 暴露되었던 것이다. 이 Reichstag의 放火事件은 Goebbels와 Goering (1887-1936)에 의하여 미리 꾸며진 演劇이었다. 1942年 Hitler 誕辰祝賀午餐會 席上에서 話題가 Reichstag의 建物과 그 藝術的 價値問題로 옮겨졌을 때 Goering은 自己가 불을 지른 것이라고 자랑삼아 말했던 것이다.¹⁸⁾ 이러한 事實은 戰後 Nürnberg의 裁判廷에서도 立證되었을 뿐만 아니라, 當時의 亡命作家 Ludwig Renn (1889-)이나 Ernst (1893-1939)의 作品에도 나타났던 것이다. Nazi의 現實의 象徴이라 할 Konzentrationslager와 GESTAPO에 關한 여러가지 作品들이 國外에서 發刊되었다. 그 중에서도 Konzentrationslager를 內容으로 한 代表的 傑作은 女流作家 Anna Seghers의 <第七의 十字架> (Das siebte Kreuz: 1939)와 Willi Bredel의 <試鍊> (Die Prüfung: 1935)이다.¹⁹⁾ 後者는 1933年과 34年사이의 作者의 體驗을 쓴 것이고, 前者는 個個의 狀況의 造形性과 描寫되어 있는 두 陣營의 사람들의 內面的 眞實性에 보다 成果를 거두고 있으나 그것은 感覺的 心理的 現

17)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49 (Kritik der Zeit)

18) Vgl. W.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3rd Reich, b. VI

19) Vgl.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37 (Der sozialistische Roman)

狀의 描寫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Seghers를 一躍 世界的 作家로 만든 作品이었다. 그 內容은 1936年 가을의 한 週日 동안의 이야기로서, 強制收容所를 脫出하는 일꾼 사람의 行動을 그린 것이다. 이것은 反Fascism鬭爭이 테에마이면서도 映畫의 montage와 같은 手法으로 獨逸의 悲慘한 當時의 狀況을 잘 나타내고 있다. Nazi에 속은 國民, 革命鬭士, 悲慘하리만치 狂信의인 Fascist等, 獨逸의 現實縮圖가 이 作品 속에 作者의 祖國愛와 더불어 무엇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Seghers는 Nazism이 싹트기 전부터 反獨裁鬭爭을 繼續하였으며, 1933년에는 獨逸에서 追放되어 佛蘭西 및 歐洲諸國을 거쳐 41년에는 멕시코에 定着하여 Humanism 文學活動을 繼續하였다. 그녀의 <死者는 젊어있다>(Die Toten bleiben jung : 1949)는 1919년부터 45년에 이르는 獨逸을 그린 보기 드문 現代 歷史小說이다. 이것은 獨逸 亡命文學一般에 比하여 Fascism에 대한 正面攻擊이며 暴露였던 것이다.

獨逸 Fascism의 現實을 그린 것이 아니더라도 H.Mann의 <Henri Quarte> (1935~1938)와 Th.Mann <Lotte in Weimar> (1939)와 같은 自由와 進歩를 나타낸 뛰어난 作品도 나왔던 것이다. H.Mann의 <Henri Quarte>는 獨逸의 具體적이고 歷史적인 悲哀에 대한 生생하고 效果的이며 對照적인 姿勢로, 그 때문에 Fascism의 支配에 빠진 獨逸의 地獄과 같은 頂點과 Kontrast를 이루고 있다. ²⁰⁾ Th.Mann은 Goethe를 다룬 <Lotte in Weimar>에서 指導적이고 積極적인 姿勢를 獨逸의 歷史에서 引用하고 있다. Goethe의 偉大한 姿勢는 항상 單純히 文學적인 것, 詩적인 것을 超越한 意志를 지니고 있다. 바야흐로 Fascism以前 數十年來의 獨逸歷史가 손조되고, Goethe가 非社會的 또는 Philister的 反政治的 人間으로 歪曲됨에 따라, Th.Mann은 反對로 歷史的 心理的 樣式化도 없이 Goethe를 前進的 發展의 人間像으로 描寫함으로써 自由와 進歩의 獨逸 本來의 힘의 解放에 基礎를 두었던 것이다. ²¹⁾ H.Mann은 그의 <Geist und Tat>에서 1933년의 亡命作家들에게 「銀行家は 統制를 받더라도 排除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가까스로 困難을 이겨낼 수가 있다. 作家는 그래선 안된다. 自己職業의 內面的 誠實을 버리는 것은 곧 作家로서의 失格이다. 이러한 事實을 不名譽라 느끼지 못하는 者は 文學과는 아무런 因緣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는 者は 個人的으로 感受性을 잃고, 그리하여 반드시 쓸모없는 作品만을 쓰게된다. ……精神만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이 退化하는 일 없이, 精神을 그르치는 權力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만 文學이 存在한다」고 말하고 있다. ²²⁾ Nazi治下에서 自身の 誠實을 버림으로써 作家로서의 失格됨을 느끼고, 또 그것을 甘受하면서까지 創作生活을 한 個人的으로는 誠實한 作家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當然히 그 當時의 重要한 課題를 對象으로 文學活動을 繼續하여야 했음에도 不拘하고, 보다 낡은 未來를 위한 自身들의 保存이 可能했는지 어떤지 그 點에 있어서는 批判적으로 評價하지 않

20)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00 (Der politische Roman); u. Doge u. Obase: Die Kurz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S. 223

21)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496; u. Doge u. Obase: Die Kurz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S. 225

22) Vgl. H. Mann: Geist und Tat, Berlin 1920 (Zu Emigranten)

으면 안된다손 치드라도, 性格이 弱한 탓으로 Nazism의 買收에 結局 屈하고 만 作家가 있었던 것이다.

Ernst Wiechert (1887-1950) 는 基督教의 問題, 神을 求하는 冥想的인 問題, 懺悔의 問題等을 大膽하게 다루어 1938年에는 Buchenwald 強制收容所에 監禁되어 GESTAPO의 監視를 받았다 (Der Totenwald: 1945). 그는 小說<Die Majorin> (1934) 에서 훌륭한 文學的 手法으로 第一次 大戰의 戰線에서의 體驗이 國家社會主義의 倫理的 基礎가 되었다는 Fascist의 傳說을 否定하고, 反對로 이것이 얼마나 道德的 頹廢를 낳았는가를 쓰고 있다.²³⁾ 그는 人間으로서나 作家로서나 自身이 Fascist의 Ideologie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Hans Fallda (1893-1947) 는 Nazi以前에 才能이 期待되던 作家였으나 Nazi時代에 쓴 그의 作品들은 平凡하고 社會批判의 內的 感覺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그러나 Nazism의 무거운 壓迫下에서도 屈하여 決코 名譽를 더럽히지는 않았다. 人間の 弱點을 알면서도 宿命에 참고 견디어 참된 人間像을 잃지 않으려고 無限히 努力한 Hans Carossa. 그는 大戰後에 쓴 그의 手記에서 「Hitler運動이 權力掌握에의 길을 걷고 있을 즈음, 나의 生活과 行動의 範圍는 政治世界와 아주 적은 接觸밖에 없었다. 新聞에는 눈여겨 보고 있었으나 어떠한 會合에도 얼굴을 내지 않았다. 選舉日이 가까와지면 나는 信賴할 만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投票를 하면 좋겠는가고 議論하였다. 나의 心中에는 偉大한 可能性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獨逸國民의 發展에 대한 信賴感이 있었던 것이다」고 쓰고있다²⁴⁾ Carossa는 1941年 獨逸支配下의 유럽諸國의 作家들을 모은 Nazi 宣傳機關인 유럽作家同盟의 議長으로 떠 받들리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眞實로 創造의 精神의 所有者라면 누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避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自身이 覺悟라고 하고 싶은듯한 느낌을 주는 會合의 議長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自身에게 좀 더 깊은 環境의 根本이 있었다면 적어도 弄談쉬인 辭退나 그렇찮으면 理由를 단 拒絶의 方法이 머리에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自身의 말과는 아주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세계에 있었다」고 當時의 어쩔 수 없었던 괴로운 心情을 말하고있다. ²⁴⁾ 이것은 大戰後 쓰여진 한 人間으로서의 그의 謙虛하고 眞實한 告白文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그의 말은 政治的 社會的 無責任이며, Hitler運動에 대한 無關心은 곧 政治는 政治人이 하는 일로서 自身들과는 何等의 關係가 없다는 뜻으로 解釋되어진다. 게다가 自身이 行使해야할 選舉權마저 남의 일처럼 밀어버리는 國民으로서의 怠慢을 暴露한 傍觀的 態度로 激動하는 時代를 넘겨 보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人間の 存在를 作家로서 追求하면서 國民으로서 祖國의 現實에 對決하지 못하고 政治에 無關心했던 것은 비단 Carossa 한 사람만의 境遇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Carossa의 말은 大部分의 獨逸文化人의 自己告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獨逸의 文化人및 知識人이 政治에 全然 無緣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아

23)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72~3 (Mythos vom einfachen Leben)

24) Vgl. H. Carossa: Ungleiche Welten, Wiesbaden 1947. u.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69 (Das Mysterium des Lichts)

무리 政治에서 떨어져 있으려 해도 政治는 苛酷하게 그들을 支配하고, 相對的이나마 그들을 政治的 行動에 끌어 넣었던 것이다. 獨逸 Fascism은 決코 그들을 政治의 테두리밖에 가만히 두지 않았다. Nazi Deutsche Akademie의 會員이 되기를 拒絶한 非政治的 作家 Carossa도 1941年 유럽 作家同盟의 議長으로 推戴되었으며, 1941年 第一次 大戰初에는 93名의 著名한 獨逸 知識人들이 Belgium侵略을 正當化하는 宣言을 썼으며, Hitler治下에서는 1,500名의 教授들이 Polland 征服을 熱烈히 支持했던 것이다. ²⁵⁾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眞實로 그들이 狂信的 Fascist가 아닐진댄, 그들의 이와같은 現象은 Nazi의 彈壓과 威脅에 의한, 어쩌면 스스로 良心을 버리고 一時的 安逸을 위하여 不義와 妥協한 非人道的 Opportunistischen 結末이라 할 것이다.

Th. Mann은 그가 初期에 쓴 <非政治的 人間의 省察> (Betrachtung eines Unpolitischen: 1918) 에서 知識人으로서 獨逸文化를 擁護하기 위하여 모든 政治를 否定하고 있다. 獨逸的이라고 하는 問題에의 獨特한 內的 體驗에서 Demokratie라고 表現되어 있는 것의 挑戰이었다. ²⁶⁾

1936年の <Bonn大學에의 公開狀>에서 殉教生活을 하여 證言者가 되기보다는 밝게 살아서 證言者가 되어 世上에 音信을 보내려 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公的 問題에 關係하려 하지 않는 知性人이었다. 살아서 證言者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과 같이 그는 Carossa 보다는 時代的이고 現實的이었다. 外部의 權力이 壓到的으로 内部의 意志를 屈服시키려 할 때, 그는 自身의 精神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非政治的 人間의 省察>에서의 政治(同時에 Demokratie·文明) 排擊도 그것이 쓰여진 時期가 第一次 大戰當時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佛蘭西人이나 伊太利人 或은 앵글로 색슨人에게는 政治가 善일는지 몰라도, 獨逸人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惡이며, 政治 以上の 것이 있다고 하는 絕對的 自己主張의 吐露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²⁷⁾ 그후 美國에서 獨逸人에게 呼訴한 라디오 放送에서 自身이 政治에 參與한 것이 1930年 以後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그의 演說 <理性에 呼訴한다>에서 이미 Fascism 에 대한 鬭爭에 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自由의 精神을 守護하기 위하여 그 以前부터 內面에 있어서는 必然的으로 政治와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Th. Mann의 Nazi批判은 이미 1920年代(進歩와 反動)부터 始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부터 計劃되고 計算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進歩와 反動的 理念的 鬭爭을 基礎로 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 Fascist의 人間이 獨逸의 諸條件下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하여 進歩와 Humanism의 代表者들이 Fascist의 人間의 進出에 대하여 無防備하였던가 하는 點이다. 이러한 契機는 새로운 主題로 나타나고 있다. H. Mann의 <Der Untertan>(1911)과 Th. Mann의 <Der Tod in Venedig>(1912)는 近代 獨逸文明의 内部에 있어서의 必然的 副產物인 野蠻的 Unterwelt의 危險을 警告하는 것이다. ²⁸⁾ 이와같이 Fascist의 暴君的 催眠術에 대한 善良한 獨逸國民의 Ideologie的 倫理的 無防

25)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300

26)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311

27)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311 u.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494~5 u. Th. Mann: Betrachtung eines Unpolitischen, Berlin 1920

28)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312

29) Doge u. Obase: Die Kurz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S. 225

備를 具體的으로 暴露한 것도 Th.Mann에 의하여 Hitler가 權力을 獲得하기 以前에 文學的 序曲으로 나타나 있다(Mario und der Zauberer:1930)

獨逸의 無抵抗이라는 主題는 第一次 大戰을 그린 Arnold Zweig의 戰爭小說 <Streit um den Sergeanten Grisca>(1927)에도 充分히 反映되고 있다.³⁰⁾ 이것은 Fascism 以前에 始作되었으나 Hitler支配下의 쓰라린 經驗이 그의 社會觀察에 대한 充分한 洞察과 成熟을 말해 주고 있다. Th.Mann은 <Betrachtung eines Unpolitischen>에서 文化와 政治觀을 달리하고 있다. 獨逸精神은 徹底한 自我認識에 의하여 自身の 內面에 자리잡고 있는 Humanism을 일깨울 수 있으며, 참다운 Humanism의 政治的 表現은 獨逸의 文化와 矛盾되지 않는 Demokratie라고 풀이하고 있다.³¹⁾ 이것은 獨逸共和國에의 信仰을 告白한 그의 <獨逸共和國에 關하여>(Von deutscher Republik:1922)의 主張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獨逸精神과 文化를 強調하면서도 如何한 國粹主義者의 獨善主義와는 本質的으로 달라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Humanism의 思想 展開가 可能했던 것이다. Nazi政權이 樹立된 以後 Heinrich Mann은 Humanism의 見地에서 Fascism과 鬪爭한 가장 偉大한 獨逸의 知識人이었다. 그의 아우인 Th.Mann이 1923年 스위스로 移住하여 한참동안 政治的으로 不明한 態度를 取하면서 反Nazi的 journalism에 關係하지 않고 沈默을 지키고 있을 즈음, H.Mann이 反Fascism鬪爭의 第一線에 나선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Deutsche Akademie의 地位에 의한 拘束으로 表現의 強弱은 있었으나 Humanist로서의 理性의 確信은 그에게 一貫해 있었다. 그는 最後까지 自身을 팔지 않은 드문 良心의 作家였다.

要컨대 時代의 底流가 作家와 結付되지 않으면 眞實의 文學이 誕生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作家의 精神이 時代의 底流로서 民衆속에 흐르고 있는 眞實한 精神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國民文學이 創造될 것이기 때문이다.

V. 結 語

以上 Fascism 文學 및 反 Fascism 文學에 대한 所見을 大略 간추려 보았다. 文學을 통한 <獨逸의 悲哀> 即 慘酷相이 과연 어느 程度 밝혀졌는지 斷言할 수 없으나, 그런대로 時代와 社會를 背景으로 한 獨逸 近代作家들의 內的 精神, 다시 말해서 叡智의 人間으로서의 近代精神이 여러 가지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Goebbels, Johst, Schirach, Euringer, Schumann, Grimm, Rosenberg, Kolbenheyer, Dwinger, Ernst 등의 Fascism을 代表하는 獨善排他的의 되에 굶주린 好戰文學과, 한편으론 Brecht, Becher, Toller, Seghers, Bredel, Wiechert, Kaiser, Kellermann, Schnitzler, H.Mann, Th.Mann 등과 여기에서는 言及되지 않았으나

30)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 559 (Literatur gegen den Krieg)

31)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S. 312 u. Th. Mann: Betrachtung eines Unpolitischen, Berlin 1920

Heinrich Heine, Hermann Hesse, Franz Kafka 等 反 Fascism 鬭爭을 위하여 나아가 참다운 國民精神과 融合되는 純粹한 國民文學으로서의 獨逸文學의 眞價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前述한 바 Fascism文學은 Nazism과 더불어 이미 이 地上에서 그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오늘날 國際情勢에 의한 東西 國土의 兩斷은 어쩌면 우리의 歷史的 運命과 마찬가지로 <獨逸의 悲哀>의 하나라 할 것이다. 지난날의 豪華糜爛했던 獨逸文學이 Fascism에 의하여 悲慘하게 짓밟혀 暗澹한 深淵에의 길을 걸어오다가 倏然히 光明에의 새로운 앞길을 되찾으려할 즈음, 다시금 아름다운 開花를 보지못한 채 獨逸의 悲哀와 함께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날 現代 獨逸文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西獨文學이 反Fascism 및 自由主義 文學으로서 이미 우리들에게 紹介되고 있다. 그것은 Wolfgang Borchert(1921~1947), Ernst Jünger(1895~), Heinrich Böll(1917~), Ilse Aichinger(1921~), Hermann Kasack(1896~), Werner Bergengruen(1892~), Stefan Andres(1906~) 등에 의한 새로운 文學의 開花이다. 反面에 共產治下에서 呻吟 하는 東獨文學과 그 文學의 悲哀는 어떠할는지 그것은 먼 훗날의 文學史家에 의해 그 樣相이 밝혀 지리라 믿는다.

<Bibliographie>

- F.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A. Kröner Verlag) Stuttgart 1958
 Georg Lukacs: Deutsche Literatur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eine Übersicht ihrer Hauptströmungen, Berlin 1945
 Inoue: Die Forschung über die deutsche Literatur, Kyodo 1955
 Doge u. Obase: Die Kurz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Tokyo 1951
 Heinrich Mann: Geist und Tat, Berlin 1920
 Thomas Mann: Betrachtung eines Unpolitischen, Berlin 1920
 R. Hinton Thomas: Thomas Mann, Oxford 1956
 Hans Carossa: Ungleiche Welten, Wiesbaden 1947
 Rajani Palme Dutt: Fascism and social revolution, 1934
 Bertolt Brecht: Furcht und Elend des dritten Reichs, 1938
 Hans Grimm: Volk ohne Raum, Bd. I. 1938
 William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Bd. I. II. V

A Study on the Romantic Poets

Sang-Ick Yang

—Summary—

We will denote the "Romantic period" the span between the year 1798, in which Wordsworth and Coleridge published their Lyrical Ballads, and 1832, when Sir Walter Scott died, when other major writers of the earlier cent. were either dead, or no longer productive, and when the passage of the first Reform Bill, after more than 30 years of political depression and repression inaugurated the Victorian era of cautious readjustment of political power to conform to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of a new industrial age. In literature, the classical, intellectual attitude gave place to a wide look, which recognized the claims of passion and emotion, the sense of mystery in life, and in which the critical was replaced by the creative spirit, and wit by humour and pathos. The Romantic Poets were marked by a revolt against the conventionalized language and meters of Augustan poetry. The Romantic poets look into themselves, seeking in their own lives for strange sensations. This strangeness of the individual experience leads each of the romantics to a spiritual loneliness. They are keenly aware of their social obligations, but the burden of an exceptional vision of life drives them into being almost fugitives from their fellow-men.

The Romantic poets lead the reader to the strange areas of human experience, but seldom welcome him in the language of ordinary conversation, or even with currency of normality.